



진리  
평화  
창조

# 외대학보

발행인	이강혁
편집인	김연수
주필	김장노
편집장	노재봉
외대신문사 (8962-7128, 961-4151)	
외대학보 (8990-4152, 8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아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황산리 889	
인쇄인	김영수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 제 다2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제800호 1993년 3월 23일 (화) 1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 (가)급인가

## 정론직필의 붓으로

## 미지의 내일을 개척하라

## 외대학보여!

울부짖는 사람이여, 고향사람들이여  
이 탄

이제는 너의 얼굴이  
매우 성숙하구나  
학부시절에는 파토스가 출렁이더니  
여기들 떠나 만나는 너니  
그자 고향 언덕같은 사람들뿐 이로구나

한때는 너의 얼굴을 만나지 못해  
나뭇잎이 피어나는 시간에도 목청을 높여 울부짖었지  
그리한 사람  
언제나 우리를 머리속으로, 가슴속으로 파고 들어  
나이를 먹으며, 휘청거리며 이 자리를 지켜 왔다.

우리의 영혼이  
갈 곳을 놓치고, 공중에서  
빙빙 돌고 있을 때  
신문 중의 신문이하는 자부심을 가진 채  
미네르바 동산이며 캠퍼스 구쳐구쳐  
발을 지웠다.

너의 피곤한 얼굴  
그 앞에서 아카데미와 보도  
그래도 연륜과 함께 점점 쌓여간 로고스  
너는  
울부짖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고향같은 얼굴이 되었구나

눈물도 있었다  
기쁨도 있었다  
이런 일을 사진첩에 넣어 둔 채  
비둘기와 함께 우뚝 선  
자랑스러운 얼굴, 믿음직한 얼굴  
이제 너는 지구의 중심이 되어  
고향을 알으며 주는구나

세계로 뻗는 우리들의 앞에  
너  
너는 우리의 고향이고,  
너는 하나의 꺼지지 않는  
불씨로구나

화보제작 : 서양화가 서해경



### 새조국 건설의 파수꾼이 되기를



이철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중흥외대 건설이라는 대명명 제속에서 외대 구성원은 연속하고 숙연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살아있는 양심으로서 외대학보가 보살피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외대인이 외대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외대는 새조국 건설이라는 외대역사의 위대한 목표를 만드는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외대학보가 40년 전통과 역사 속에서 외대 학보라는 언젠가 있었고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까. 우리 7천 학생들이 언젠가 학보의 친근한 '벗'이었고 학보의 애정 어린 독자들에게. 그러하기에 학부들은 외대학보를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외대학보의 진정한 역할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배려일 것입니다. 외대학보가 배려를 발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40년의 저명한 역사에는 수많은 선배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대인 전통을 이어가는 외대학보의 자랑과 자부심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외대학보의 역사는 바로 외대학보의 역사이며 더욱더 자부스럽고 근거있게 외대발전의 조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의 외대학보를 더욱 빛낼 것입니다.

화요일 그날이 오면 어김없이 외대는 한 주일 동안 있었던 만차의 흥을 털어버리며 12개의 지면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넓은 페이지에 어떤 곳은 밝은 넓어지지만 어느 구석은 칙칙한 구름이나나 부위가 불균형하게 느껴지는 외대의 모습은 항상 외대학보가 그려내는 외대 그자였었습니다. 오늘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이룩한 알량함속에는 그나마 한인의 정열이 피고자 담았던 외대학보의 힘과 노력과 열정이 숨겨져 있음을 외

### 외대학보는 언제나 외대의 꺼지지 않는 등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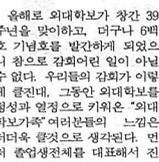
대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외대인 여러분! 저는 총학생회장이라는 중배에 강한 역사의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과 국가, 세계를 견인하기 위한 대학인의 책무는 무엇인가, 그 책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대학인은 어떻게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현실에 구현되고 구현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역사는 친절하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외대는 조국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앞당기는 데는 선봉에서 서서 싸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생의 주의로 5.6공군사정권으로부터 모진 탄압을 이겨 내고 부흥과 승리의 찬란로 정주해 왔습니다. 여기에 그 긴 역사를 함께한 외대학보는 산 삼촌이여 꺼지지 않는 등불



김현욱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이 되기에 너무도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외대학보에! 외대 발전사의 갈피갈피에 새겨져 있는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앞에 뜨거운 존경의 마음을 드리며, 현재 격동하는 21세기의 도전을 이겨 내어 분단의 아픔을 씻어내며 합일의 역사를 창조해야 할 소망이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는 애국외대의 학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외대인 모두가 애국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라며, 조국과 민족의 강령이 우리의 어깨위에 있으며 그것은 결코 불의와 타락될 수 없는 것임을 청년학생들 학도들은 가슴에 새겨야 하며 애국의 대의를 떨쳐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대학보 6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제2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김준연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올해로 외대학보가 창간 39주년을 맞이하고, 더구나 600호 기념호를 발간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들의 감회가 이렇게 절정이다. 그동안 외대학보를 창간과 발전으로 키워 온 '외대 학보가족' 여러분의 '느낌'은 대단히 값있게 생각된다. 먼저 총학생회장 대표로서 전 사설 외대의 화합과 성장과 발전에는 외대학보에 대해서 4인어 문물들은 한결같은 공의 애착과 희생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명대대학들이 외대학보 만큼 다양한 변화를 타락하고, 국제사회의 변화에 선취적인 기상으로 호응하고 예리한 분석력으로 39년의 외대학보의 발전의 시대와 일치하게 돼 왔습니다. 외대는 역사의 도약을 이루어 짧은 시간대에 명문대학의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동서남북, 5대양해도를 누비며 외교와 행정에서 통상과 국제금융의 현장에서 이따기 말할 수없는 자기의 지에서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이익을 이룰 때 외대인의 화합과 단결이다. 39년에 600호의 역사는 현대사회의 기운으로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그동안 외대인이 세운 전통과 업적에 공저를 노래하면서 한편으로는 외대 제2도약을 위한 과감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기점에 서 있음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였다. 그리고 만들어져, 외대인의 능력은 만들어내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김정원 본교 교수협의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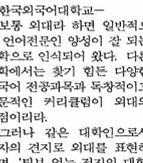
본교 교수협의회 회장  
본교 외대의 빛깔로 저지해 온 외대학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외대인들이 추구하는 외대인의 의의와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외대학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대학보가 39년 동안 외대 발전에 공헌해 오셨는데, 그 공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대학보가 39년 동안 외대 발전에 공헌해 오셨는데, 그 공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6백호 발간이 새로운

### 도약의 계기가 되길

외대학보가 600호를 맞이하는 것은 39년 동안 외대 발전에 공헌해 오셨는데, 그 공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대학보가 39년 동안 외대 발전에 공헌해 오셨는데, 그 공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새벽을 외치는 선도가, 외대학보



최영실 이대 국악과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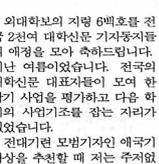
외대학보의 지평 600호를 전 국민이 보게 하고 수천 높은 현실적 의미를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제작된 6·3 종의 특별사건은 일반 언론문의 평가적 보도로 인해 외대의 이미지를 훼손하기도 했지만 시시하든 바깥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당시 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1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는 외대학보의 부흥이 방방곡곡 자원을 깨닫는다는. 학생들의 목숨 기어와 앞서 당시 사회적 도면에 대한 정당한 평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대학보의 이러한 과정과 이 바로 외대발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발전의 단계를 이뤄왔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외대학보 600호를 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외대의 무한한 발전과 외대인들이 고하는 시대의 새벽 외침이 언제나 늘 깨어있기를 기원합니다.



최영실 이대 국악과 2년

외대학보의 지평 600호를 전 국민이 보게 하고 수천 높은 현실적 의미를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제작된 6·3 종의 특별사건은 일반 언론문의 평가적 보도로 인해 외대의 이미지를 훼손하기도 했지만 시시하든 바깥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당시 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1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는 외대학보의 부흥이 방방곡곡 자원을 깨닫는다는. 학생들의 목숨 기어와 앞서 당시 사회적 도면에 대한 정당한 평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대학보의 이러한 과정과 이 바로 외대발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발전의 단계를 이뤄왔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외대학보 600호를 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외대의 무한한 발전과 외대인들이 고하는 시대의 새벽 외침이 언제나 늘 깨어있기를 기원합니다.

# 600호 발간을 축하하며



손희기 전대리인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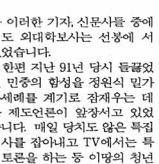
### 민음직한 대학신문 혁신의 기수 외대학보

이었던 박재철문을 추천하였습니다. 당시 추천의 사유는 91년 4월 강경대열사의 쇄파로 살해사건을 시발로 틀림없이 살해사건 5.6공군, 노태우 정권하에서의 학생들의 투쟁을 총리리의 계단제로 추종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백의 생명을 잃게 되었음에도 더더욱 열심에 대중선전활동가의 길을



손희기 전대리인 의장

이었던 박재철문을 추천하였습니다. 당시 추천의 사유는 91년 4월 강경대열사의 쇄파로 살해사건을 시발로 틀림없이 살해사건 5.6공군, 노태우 정권하에서의 학생들의 투쟁을 총리리의 계단제로 추종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백의 생명을 잃게 되었음에도 더더욱 열심에 대중선전활동가의 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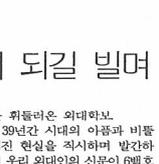
손희기 전대리인 의장

이었던 박재철문을 추천하였습니다. 당시 추천의 사유는 91년 4월 강경대열사의 쇄파로 살해사건을 시발로 틀림없이 살해사건 5.6공군, 노태우 정권하에서의 학생들의 투쟁을 총리리의 계단제로 추종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백의 생명을 잃게 되었음에도 더더욱 열심에 대중선전활동가의 길을



손희기 전대리인 의장

이었던 박재철문을 추천하였습니다. 당시 추천의 사유는 91년 4월 강경대열사의 쇄파로 살해사건을 시발로 틀림없이 살해사건 5.6공군, 노태우 정권하에서의 학생들의 투쟁을 총리리의 계단제로 추종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백의 생명을 잃게 되었음에도 더더욱 열심에 대중선전활동가의 길을



손희기 전대리인 의장

이었던 박재철문을 추천하였습니다. 당시 추천의 사유는 91년 4월 강경대열사의 쇄파로 살해사건을 시발로 틀림없이 살해사건 5.6공군, 노태우 정권하에서의 학생들의 투쟁을 총리리의 계단제로 추종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백의 생명을 잃게 되었음에도 더더욱 열심에 대중선전활동가의 길을



손희기 전대리인 의장

이었던 박재철문을 추천하였습니다. 당시 추천의 사유는 91년 4월 강경대열사의 쇄파로 살해사건을 시발로 틀림없이 살해사건 5.6공군, 노태우 정권하에서의 학생들의 투쟁을 총리리의 계단제로 추종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백의 생명을 잃게 되었음에도 더더욱 열심에 대중선전활동가의 길을

# 지금까지, 또 이제부터...



55년 4월 11일, 한강짜리 외대학보가 나오던 날은 외대가 진리에 눈을 뜨던 날이었습니다. 그후 한강한강 학보가 쌓여지면서 2면에서 4면으로, 4면에서 8면으로, 8면에서 12면으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 온 외대학보. 지면수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안으로 대학의 발전과 밖으로 사회의 진보를 외침처럼 전국에서 제일가는 대학신문, 외대 학보.

이제 600호 지평앞에서 저희 외대학보 기자일동은 지금까지 걸어 온 길을 되새겨보고, 그 길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고 합니다.

600호 발간의 기쁨을 외대인들과 함께 나누고자 '600호 기념공모'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대 곳곳에 부착해있는 포스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 경제블록화를 분석한다 IV

# 자국이 이익에 기반한 배타적 협력체, 동북아 경제권

박 용 구  
· 본고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

## 동북아 경제협력 구상

EC에 이어 인구나 경제규모면에서 EC에 버금가는 NAFTA의 성립,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아시아와 지역의 경제협력이 활발해 노는 필요로 세계경제는 바야흐로 유럽연합, 북미경제권, 그리고 아시아 경제권으로 삼분화되는 과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 중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 구성논의가 있어왔고, 지금도 해당국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한일경제권'은 현재 아시아의 육지지역 중 약 20%, 전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구상은 태평양지역 신진제국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을 가맹국으로 하는 경제공동체였으나 다른 나라들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했다.

최근 들어서는 아-태경제권과는 별도로 일본에서는 동북아 경제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환일본해 경제권'으로 표현된다. '환일본해'란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을 주요 구성국으로 해서 '일본해(동해)를 공통의 내해로 하고 있는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소련의 극동지역(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사할린, 이부리), 중국의 동북3성을 중심으로 한다. 이 지역은 '한일경제권'에 이차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일경제권'은 현재 아시아의 육지지역 중 약 20%, 전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구상은 태평양지역 신진제국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을 가맹국으로 하는 경제공동체였으나 다른 나라들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했다.

경제권의 구축이 절대로 필요하다. 동북아 경제권에 대한 동북아의 관심은 예년보다는 약간 완화되고 있다. 동북아 경제권에 대한 동북아의 관심은 예년보다는 약간 완화되고 있다. 동북아 경제권에 대한 동북아의 관심은 예년보다는 약간 완화되고 있다.

## 중국의 동북아경제권 구상

중국의 경우 1988년 대외경제협력구상(대외경제협력구상)을 수립하여 추진해오던 중이던 1991년 이후 최근에는 위의 범위를 넘어 동북아 경제권을 구상하고 있다. 그것은 1997년과 1998년 동북아 경제권 구상(대외경제협력구상)을 수립하고 있다. 그것은 1997년과 1998년 동북아 경제권 구상(대외경제협력구상)을 수립하고 있다.

## 러시아 동북아경제권 구상

러시아는 이미 구제개혁이 계속되고 구상을 제시한 적은 없으나 구제개혁이 어떠한 형태로 아태지역에 전개될지에 따라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왔다. 그것은 1997년과 1998년 동북아 경제권 구상(대외경제협력구상)을 수립하고 있다.

## 동북아 경제권의 장단점

동북아 경제협력의 촉진요인은 첫째, 세계경제의 지역화 추세에 대응하여 구제개혁의 시장상선을 증진시키는 시장개방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냉전체제의 종식과 이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의 개방정책이 계획경제권과 시장경제권과의 상호협력가능성을 제고



“할 수출입방 반대”를 외치는 일본의 한 노인

반면 지역내의 첫째, 냉전체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역내에 여전히 존재하는 경제체제의 이질성에 서 생기는 경제협력의 어려움이다. 둘째, 동북아지역의 패권화들을 둘러싼 정치·군사적 갈등이다. 이 지역에서는 남북한간의 대립, 중국과 일본, 소련간의 영토분쟁, 그리고 구제개혁이 초래한 경제협력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셋째, 동북아에서 다국적협력체를 통한 상호의존관계의 확대는 남북간의 경제협력의 촉진에 유리할 수 있으나 이 단면의 남북간의 동질성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이 지역에 속해있는 정치, 경제, 군사대국들의 패권주의와 영구분쟁에 시달릴 수 있는 중추지역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및 경제발전, 경제구조상의 중추적 위치를 새로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 한국의 선택

민족단위의 현실에 놓여 있고, 정치경제적 패권국의 직접적인 교류가 불가능한 한국의 입장에서 이는 국경중립의 원칙으로서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중립적 접근이 필요하다. 동북아에서 다국적협력체를 통한 상호의존관계의 확대는 남북간의 경제협력의 촉진에 유리할 수 있으나 이 단면의 남북간의 동질성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이 지역에 속해있는 정치, 경제, 군사대국들의 패권주의와 영구분쟁에 시달릴 수 있는 중추지역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및 경제발전, 경제구조상의 중추적 위치를 새로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10% (약 2억 9천만명), 약 3조달러에 달하는 국민총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대동경제권이다. 모든 역대국

## 중국의 동북아경제권 구상

중국의 경우 1988년 대외경제협력구상(대외경제협력구상)을 수립하여 추진해오던 중이던 1991년 이후 최근에는 위의 범위를 넘어 동북아 경제권을 구상하고 있다. 그것은 1997년과 1998년 동북아 경제권 구상(대외경제협력구상)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에 몰아친 자본주의의 비참, 주시청악을 둘러싼 혼란

## 일본의 동북아경제권 구상

일본은 침략전쟁에서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아태지역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좁은 다자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동북아 경제협력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일찍이 일본은 1966년 小島清교수에 의한 유류경제공동체(ECO)를 모델로 한 '태평양 자유무역지역'(Pacific Free Trade Area)의 제창 이후, 오호라오후쿠에 1979년 아태경제권 구상의 일환으로 '환태평양대동구상'을 발표하는 등 아태지역 경제권 형성에 대한 구상을 다

선상에서 대만과의 경제통합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에 입각한다. 이 중추적 대동구상(대동구상)을 추진해오던 중이던 1991년 이후 최근에는 위의 범위를 넘어 동북아 경제권을 구상하고 있다.

## 물질을 차례

1. 경제협력화 되는 세계 경제 질서
2. 유럽의 경제협력화
3. 북미경제권이 국제경제체제에 미치는 영향
4. 동북아경제권의 형성
5. 동북아경제권의 형성
6. 동북아경제권의 형성

## 한국의 동북아 경제권 접근 정책, 남북 경협 구축

## 동북아 경제협력권 양태, 국지적 통합 가능성 커

소련 전체 에너지 자원 매장량의 90%, 삼림지원의 70%를 차지한다. 또한 서부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대우량은 이 지역을 중동과 같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세계 생산지로 부상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시베리아는 삼림면적이 소련의 81%, 세계의 18%를 차지하고, 또한 수산지원의 보고로도 익히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여건에 따라 코르마초프는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톡연설

## 델라웨어대학교 교환학생 지원 신청안내

1993년 제2학기중 델라웨어대학교 교환학생 지원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학생은 신청하기 바람.

1. 지원대상: 본 대학교와 델라웨어대학교에 공동으로 개설되어 있는 학과의 학생
2. 이수과목: 전공 및 부전공분야의 교과목을 원칙으로 함.
3. 지원지역: 아래의 지역을 갖춘 학생으로 소속 학과장, 학장의 지도 승인을 받은 학생
  - 1학년 이상 수료자로 2, 3학년 학생
  - TOEFL 성적 총 평점평균 3.00 이상인 자
  - TOEFL 성적 550점 이상인 자(자연계는 520점 이상), 해외 영어연수 'B' 이상인 자, 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영어시험 합격자
  - 기타 해외여행에 걸림사유가 없는 자
4. 신청기간: 1993년 3월22일(월) ~ 4월23일(금)
5. 제출서류:
  - 제학인증서(국, 영문)
  - 전학인 성적증명서(국, 영문)
  - 교과목 이수계획서(학교 소정양식)
  - 지정필인 방학 신청서(학교 소정양식)
  - TOEFL, 또는 해외 영어연수의 해당 성적 및 이수증명서
  - 방학일정 사진
  - 신원보증서(학교 소정양식)
  - 등록금 납입증명서(선발후 8월중 제출) 사본
6. 교환기간: 1) 1993년 9월 ~ 1994년 2월(6개월, 1학기) 2) 1993년 9월 ~ 1994년 8월(1년, 2학기)
7. 신청주소: 서울캠퍼스 학생과(TEL: 961-4033, 4035) 용인캠퍼스 학생과(TEL: 0335-30-4034)
8. 기타 유의사항:
  - 본 대학에 해당 학기의 등록을 필해야 하며, 델라웨어대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경비는 자비로 부담한다.
  - 소정의 허가기간이 만료된 교환학생은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고, 등록 및 수장신청을 소정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 교환학생은 교환대학의 책임자가 증명하는 성적 및 이수증명서를 발급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환기간중 본인의 능력부족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비하여 교과목 이수계획에 대한 소속 학과장, 학장의 사전 충분한 검토와 지도를 받아야 한다.

1993년 3월19일  
학 생 처 장

## 주간취업정보안내

추천의뢰처	직종	인원	자 격	미감일자
세한법정관련(주)	무역	2명	중어회화 및 영어가능자	3월26일
동인통상	무역	3명	영어회화 가능자	3월25일
한국농산물유통	영업	남00명	전공불문	3월25일
동원과학산업	비서, 일반사무	여0명	1969년 이후졸생자	3월27일
우주무역(주)	무역	남1명	영어특득, 작문, 회화가능자	3월24일
		여1명	영어특득, 작문, 회화가능자	
			운전면허취득자	
(주)부국통	무역	2명	중어회화가능자(북경어 회화 가능자)	3월25일
프랑스 생명보험	영업관리	남, 여0명	전공불문	3월25일
	조직관리	남, 여0명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처 취업보도대로 직접 내방 문의 바람.

1993년 3월22일  
학 생 처

## 공 고

제목: 93학년도 정기B형 간담 검사 및 집중 건강검사 실시

본 보건실에서는 교직원 및 재학생의 건강관리 목적으로 B형 간담의 예방과 각종 성인병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1993학년도 정기 B형 간담검사 및 집중과 건강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다 —

1. 검사신청 및 검사일
  - 서울캠퍼스-93.3.24(수)~25(목) 2일간(09:30~16:00)
  - 용인캠퍼스-93.4.1(목) 10:00~16:00
2. 대상: 교직원 및 재학생
3. 결과통보 및 1차 접종일
  - 서울캠퍼스-93.4.8(목)~9(금) 2일간
  - 용인캠퍼스-차후통보
4. 실시장소: 양 캠퍼스 보건실
5. 실시종류: B형 간담검사, 3회 예방접종과 추가접종, 건강검사
6. 검사 및 접종기간: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지부(보건사회부 산하기관)
7. 금액: B형 간담검사-1,400원, 1회접종료-6,200원
 

※건강검사전료-의료보험 수가 기준임. (신청서 검사료유무)
8. 건강검사 신청서 배부-각 단과대학 교학과 및 보건실

1993년 3월22일  
학 생 처 보 건 실

1년 넘게가... 어문경의 어문학과 어문동... 단편 단편니... 제비꽃사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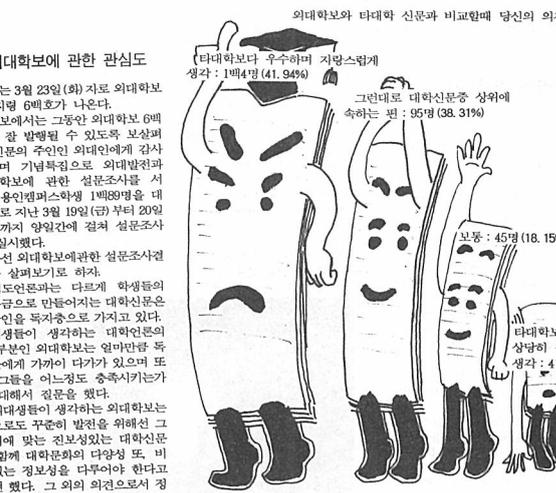
질문1. 저분과 권력에 의존하는 제도인만큼은 달리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유지되고 대학이라는 안정적인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 언론의 하나로써 외대학보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대신문은 제도인만큼은 달리 대학신문이 가지는 사회, 학사행정의 비평과 감시기능과 진보적 여론을 소개하는 진보성과 선도성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93명 (35.91%)  
 타인회고 문헌과 시대에 맞게 대대신문 특유의 진보성 유지와 아울러 다양한 대학내외와 정보지로서의 역할도 비중있게 다루어야 한다: 1백15명 (41.40%)  
 학문과 권리를 탐구하는 대학이란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치성이나 사회성이 실린 기사보다는 학술적인 기사와 연구와 학문풍토를 조성하는 기능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46명 (17.77%)  
 인간신문과 같이 스포츠, 오락, 연애가 동경등 가볍게 읽을 수 있는 흥미유위의 기사를 더욱 확대 해야 한다: 5명 (1.93%)  
 질문2. 귀하가 생각하는 1명의 담면에 외대학보는 현재 어느 정도 이를 충족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 되는 편이다: 16명 (6.25%)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다: 77명 (30.08%)  
 보통이다: 78명 (30.47%)  
 조금은 부족하다: 66명 (25.78%)  
 매우 부족하다: 19명 (7.42%)  
 질문3. 귀하는 외대학보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우 학보를 보며 대학생활에 도움이 됨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64명 (26.12%)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시간이 나면 학보를 읽고 기사에 대해 관심이 가는 편이다: 1백37명 (55.92%)  
 가끔 지나가다가 눈에 띄면 보고 별 관심은 없다: 42명 (17.14%)  
 마땅히 읽을 것도 없고 기자들도 모르고 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2명 (0.82%)  
 질문4. 외대학보는 연 25회, 주 12번 발행으로 전국 최대의 발행부수와 지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외대학보와 타대학신문과 비교하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대학 신문보다 깨끗한 편집, 보다 진보된 기사의 질로 볼때 타대학보다 우수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백4명 (41.94%)  
 그런대로 대학신문중 상위에 속하는 편이다: 95명 (38.31%)  
 보통이다: 45명 (18.15%)  
 타대학보다 어지러운 편집과 지루한 글서술등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4명 (1.61%)  
 질문5. 외대학보 지면중 귀하가 가장 관심있는 면은 무엇입니까?  
 대학소식과 학자 소식을 보도하는 대학보도면 (외대학보 3, 10, 11면): 74명 (28.91%)  
 사회의 부조리 고발과 민주화를 유도하는 사회면 (외대학보 4, 5, 6, 7, 9면): 53명 (20.70%)  
 문화적 감각과 독자들의 문제를 강상하는 문화면 (외대학보 7, 12면): 23명 (9.08%)  
 독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조사하는 여론면 (외대학보 2, 8면): 21명 (8.20%)  
 주중 학내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건, 사실을 알리는 주제면 (외대학보 1면): 85명 (33.20%)  
 질문6. 외대학보 광고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대학신문답게 상업성에 치우치지 않고 학생, 학과기획광고, 비둘기칠판 등 신선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1백19명 (38.14%)  
 상품광고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길이 지체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1백37명 (33.01%)  
 편집기술이 부족으로 인해 광고가 조잡하고 눈에 들어 오지 않는다: 13명 (5.17%)  
 비둘기칠판같이 독자들의 의견을 알릴 수 있는 광고면이 더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76명 (24.36%)  
 질문7. 외대학보를 읽게되는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시의동향과 정치정세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45명 (18.37%)  
 각종 학생회, 학회행사, 학내 사항과 공지사항에 관한 정보를 얻기위해: 1백27명 (42.04%)  
 사설, 크로니클, 민의제, 기사의 눈 등 분석을 대학신문답게 진보적이고 신선해서: 35명 (14.29%)  
 학내, 학외의 학술정보나 연구자료를 얻기위해: 27명 (11.02%)  
 특별한 이유없이 일주일 마다 발행이 되니 친숙해서 습관적으로: 35명 (14.29%)  
 질문8. 외대학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너무 급진적 이념 소개와 관점으로 인해 이데올로기 편향이 다소 있는 것 같다: 27명 (11.02%)  
 특별한 이유없이 일주일 마다 발행이되니 친숙해서 습관적으로: 35명 (14.29%)

편견이 난해하고 오묘가 많아 읽기가 어렵다: 4명 (1.83%)  
 지면을 떠나 학보사 기자들이 자기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폐쇄적인 느낌이 들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74명 (33.79%)  
 질문9. 현재 여러대학신문—건대, 서경대 (옛 국제대)—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계속적으 사태에 놓여 있어 대학언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학생기자들이 지나치게 선동성을 강조하는데서 문제가 비롯돼 이를 올바르게 지도하려는 학교당국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13명 (5.58%)  
 대학신문을 학교의 홍보지로 생각하고 기자들을 학생으로 생각해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대학당국과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명백한 편집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90명 (38.63%)  
 어찌됐건 신문은 언론중립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문은 발행해야 하며 대대신문의 주인은 대학이므로 모든 문제 해결은 대학안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1백14명 (48.93%)  
 질문10. 마지막으로 외대학보 6백호를 맞아 귀하께서 하고 싶은 말은? (주관없이 자유롭게 쓰기)  
 3월 23일 (화) 지외대학보는 지령 6백호가 나온다. 본보에서는 그동안 외대학보 6백호가 잘 발행될 수 있도록 보살피준 신문의 주인인 외대인에게 감사드리며 기념특집으로 외대발전과 외대학보에 관한 설문조사를 서울·용인캠퍼스학생 1백2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9일 (금)부터 20일 (토)까지 양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외대학보에 관한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제도인만큼은 다르게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만들어지는 대대신문은 대학인을 독자층으로 가지고 있다. 외대신문이 생각하는 대학언론의 한 부분인 외대학보는 얼마만큼 독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야 하며 또한 그들을 어느정도 충족시키기에 내대서 정권을 했다.  
 외대신문이 생각하는 외대학보는 앞으로 또 꾸준히 발행을 위해서 그 시대에 맞는 진보성있는 대대신문과 함께 대대문화의 다양성 또 비중있는 정보성을 다루어야 한다고 답변 했다. 그 외 의견으로서 정치성이나 사회성의 기사보다도 학문과 권리를 탐구하는 기사와 학문풍토를 조성하는 기능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를 했다.  
 이러한 역할로서 외대신문에게 외대학보는 보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서울·용인캠퍼스 1만 2천명의 학생들 개개인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웰빙들은 외대신문이 인정한 외대학보라는 평가를 내린다.  
 또한 외대신문이 가지는 외대학보의 관심도를 살펴보면 지난번 관심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어떤 학내외에 사건이 있을때에는 학보의 실린 기사를 읽고 관심은 가지는 학생들은 전국의 담면이 나왔다. (55.92%) 또한 매주 발행되는 학보에서 대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학생들도 있었다. (26.12%)  
 외대학보는 전국대학 신문중 연 25회 주 12번 발행으로 전국 최대의 발행부수와 지면을 발행하고 있다. 대대신문과 타대학신문과 외대학보를 비교할때 느끼는 점은 대대신문은 생략하고 지령 6백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있어 대대신문중 상위에 속한다는 의견이었다. (33.2%)  
 외대학보는 대학에서 담당하는 대학소식과 학자소식을 보도하는

설문조사 결과

질문1. 당신이 외대에 들어오기 전 외대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다는 외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68명 (46.56%)  
 당시의 자신의 객관적 상황을 비교할 때 가장 적합한 대학이어서: 74명 (39.15%)  
 당시의 대학에서 차지하는 외대의 입지가 높은 위치에 있어서: 11명 (8.22%)  
 기타: 16명 (8.46%)  
 질문2. 당신의 인정을 볼때 외대는 어떤 의미로 당신에게 다가올까요?  
 자신의 정태를 위해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 64명 (35.75%)  
 진정한 학문을 할 수 있는 학문의 산실이며 자정인으로써의 자질을 형성하는 공간: 35명 (19.55%)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경원의 산실: 75명 (41.90%)  
 기타: 5명 (2.79%)  
 질문3. 외대를 다니는 동안 당신이 가장 멋있고 자랑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외대인이 외대의 특수성에 맞게 사회에 진출하여 세계 곳곳에서 외대의 이름을 부각시킬때: 76명 (39.79%)  
 외대생들이 사회를 올바르게 바랄 줄 알고 사회의 모순을 멋있게 표출할 때: 38명 (19.90%)  
 외대인이 외대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서로 단합하며 외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 57명 (29.84%)  
 외대가 대학 중에서 인정을 받을 때: 20명 (10.47%)  
 질문4. 외대를 다니며 당신이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고 실망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외대라는 특수성을 살릴 수 없을 정도등의 나후된 시절을 볼 때: 74명 (37.9%)  
 분별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 외대인을 볼 때: 57명 (28.5%)  
 외국어만을 공부한다는 한계점을 알지 못하고 졸업 후에 전망이 밝지 못한 모습들을 볼 때: 62명 (31%)  
 기타: 7명 (3.5%)  
 질문5. 현재 외대의 입지를 어떻게 보십니까?  
 외대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19명 (10.80%)  
 외대는 그 입지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97명 (55.11%)  
 현재는 주춤하고 있으나 곧 그 입지가 회복될 것이다: 57명 (32.39%)  
 기타: 3명 (1.70%)  
 질문6. 질문(5)에 답변을 하셨다면 그 답변에 대한 근거를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계제 불기)  
 질문7. 외대를 설립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재단의 이름은?  
 암: 132명 (80.98%) 모름: 31명 (19.02%)  
 질문8. 당신이 소속된 총학생회는 현재 몇명입니까?  
 암: 88명 (55.70%) 모름: 70명 (44.30%)  
 질문9. 외대가 설립된지 올해로 몇년째입니까? 당신이 알고 계십니까?  
 암: 67명 (41.36%) 모름: 95명 (58.64%)  
 질문10. 당신은 외대의 교가를 부르실 수 있습니까?  
 예: 36명 (22.78%) 아니요: 1백20명 (75.55%)  
 기타: 2명 (1.28%)  
 설문조사 대상: 서울·용인 캠퍼스 학생 1백 87명  
 조사일시: 3월 19일 (금)~20일 (토)

외대학보 지령 6백호 기념 외대에 대한 관심도



외대학보와 타대학 신문과 비교할때 당신의 의견은?  
 [타대학보다 우수하며 자랑스럽게 생각: 1백4명 (41.94%)]  
 [그런대로 대학신문중 상위에 속하는 편: 95명 (38.31%)]  
 보통: 45명 (18.15%)  
 타대학보다 상당히 부족하다: 4명 (1.61%)

외대학보에 관한 관심도  
 오는 3월 23일 (화) 지외대학보는 지령 6백호가 나온다. 본보에서는 그동안 외대학보 6백호가 잘 발행될 수 있도록 보살피준 신문의 주인인 외대인에게 감사드리며 기념특집으로 외대발전과 외대학보에 관한 설문조사를 서울·용인캠퍼스학생 1백2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9일 (금)부터 20일 (토)까지 양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외대학보에 관한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제도인만큼은 다르게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만들어지는 대대신문은 대학인을 독자층으로 가지고 있다. 외대신문이 생각하는 대학언론의 한 부분인 외대학보는 얼마만큼 독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야 하며 또한 그들을 어느정도 충족시키기에 내대서 정권을 했다.  
 외대신문이 생각하는 외대학보는 앞으로 또 꾸준히 발행을 위해서 그 시대에 맞는 진보성있는 대대신문과 함께 대대문화의 다양성 또 비중있는 정보성을 다루어야 한다고 답변 했다. 그 외 의견으로서 정치성이나 사회성의 기사보다도 학문과 권리를 탐구하는 기사와 학문풍토를 조성하는 기능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를 했다.  
 이러한 역할로서 외대신문에게 외대학보는 보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서울·용인캠퍼스 1만 2천명의 학생들 개개인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웰빙들은 외대신문이 인정한 외대학보라는 평가를 내린다.  
 또한 외대신문이 가지는 외대학보의 관심도를 살펴보면 지난번 관심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어떤 학내외에 사건이 있을때에는 학보의 실린 기사를 읽고 관심은 가지는 학생들은 전국의 담면이 나왔다. (55.92%) 또한 매주 발행되는 학보에서 대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학생들도 있었다. (26.12%)  
 외대학보는 전국대학 신문중 연 25회 주 12번 발행으로 전국 최대의 발행부수와 지면을 발행하고 있다. 대대신문과 타대학신문과 외대학보를 비교할때 느끼는 점은 대대신문은 생략하고 지령 6백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있어 대대신문중 상위에 속한다는 의견이었다. (33.2%)  
 외대학보는 대학에서 담당하는 대학소식과 학자소식을 보도하는

축 외대학보 지령 600호를 축하드립니다.

# 우리의 미래가 다가온다

“외국어 교육의집 32년 / 결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

현실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만들고, 미래속에서 많은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 우리의 미래는 바로 그들의 것입니다. 시사영어학원은 전진하는 젊은이들, 성취하고자 하는 젊은이들, 바로 이런 분들에게 배움의 드넓은 광장이고 싶습니다. “외국어 학습의 정복” 시사영어학원이 실현시켜 드립니다.

TOEFL TOEIC READING VOCAB 22000 커리큘럼 성문종합영어 성문기본영어	TOEFL C AFKX 당일뉴스 청취 미국어 HEARING 영어회화 영어회화(한인 미인)	TOEFL 600 GRE GMAT M-A ENGLISH 통역대학원문	일어모법·독해·회화 일본회화 수업이론 독일어모법·독해·회화 러시아어모법·독해·회화
---	---	---	---

주요특강반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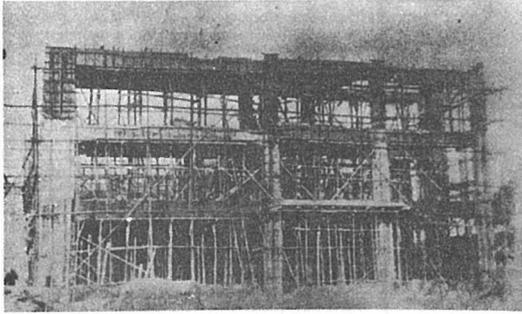
시사영어학원

● 풍로 2가 종로시청위 (지하철 1호선종각역) 734-2442(대표)



□본보 6백호 발행을 맞이하여 외대의 역사를 되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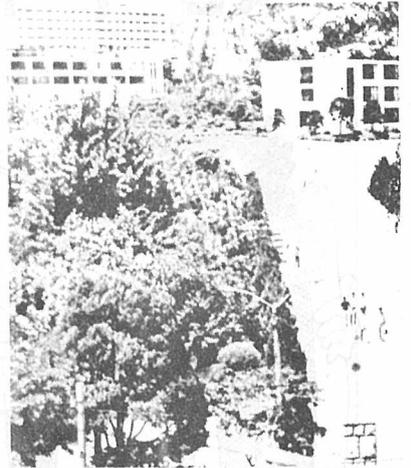
# 장년 외대의 발자취! 이제 제



외대의 첫시작을 알리는 본관 건립



1961년 서울캠퍼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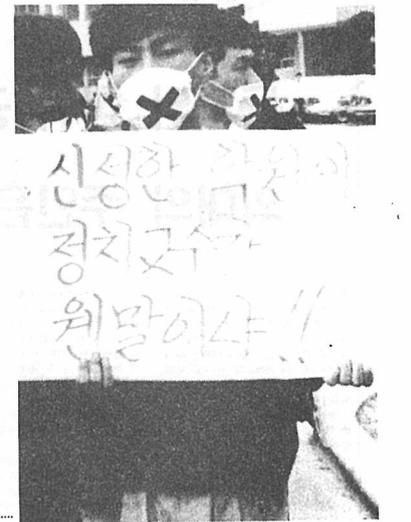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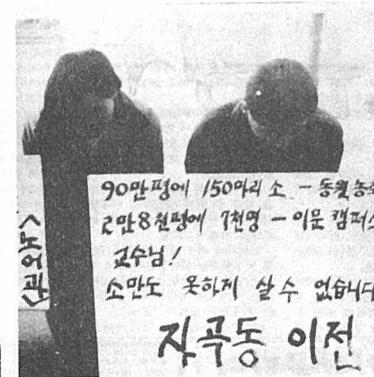
1970년대 명실상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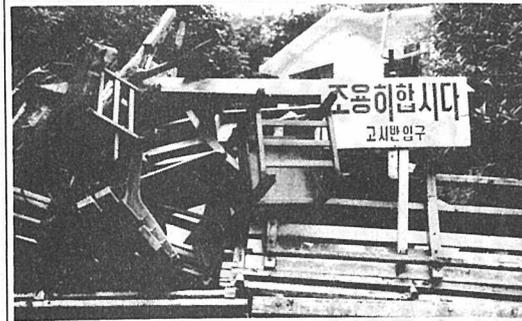
군사문화가 부린 내린 대학가(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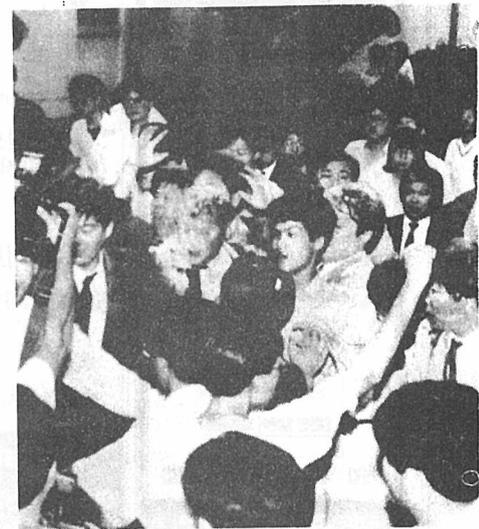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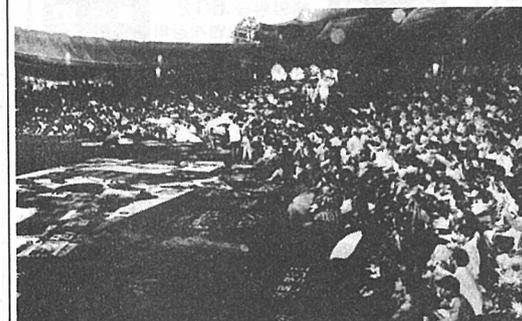
대학생의 전방입소 훈련 반대 투쟁(1980년대)



전교조 교사를 교단에서 내쫓고, 김귀정 학우를 이스파르투에서 무참히 죽인 정원식 총리서리 그리고 본교 정치교수들이 이미 신성한 학원의 교수로 설 자격을 잃었다고 항의하고 있다.



87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등록금 문제로 해마다 진통을 겪고있다. 하지만 등록금 투쟁은 등록금 맞돈을 깎기 위한 단순한 경제 투쟁이 아니라 교육재정 확보,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전반적인 학원자주화 투쟁이다. 전외대인의 이해와 요구가 걸려있는 외대발전 투쟁은 이제 자곡동에서 제2의 명성을 떨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2의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제작 : 사진부



명문대로 성장



1980년대 용인캠퍼스 건립



1990년대 용인캠퍼스 개교 10주년 기념탑 제막



학원의 일주제로 굳건히 서기 위한 직원들의 투쟁



정권의 편을 지키기 위한 언론사의 투쟁은, 학원 체주체의 정당한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고자 하는 투쟁이기에 외대의 역사를 그대로 투쟁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과언이 아니다.



임수경대표의 필축참가는 통일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용인캠퍼스의 묘의 광양축전(우)과 북한기자의 본교 방문(우)은 남과 북을 끈끈하게 이어주었다.



## 도전은 젊음의 특권이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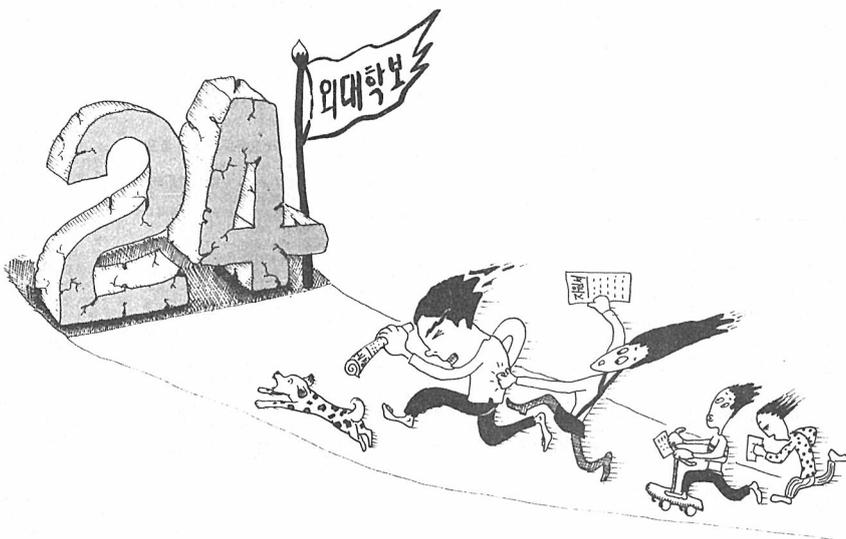
목요일엔 밀린 레포트를 쓰고,  
금요일엔 동문회 선배들과 취하도록 마시고  
토요일엔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영화를 보고  
일요일엔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고  
월요일엔 과친구들과 차 한잔을 나누고  
화요일엔 뭔가 신선한 일을 찾아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 무의미하게 흐르고 아, 수요일엔 무엇을 할까. 의미있는 일 없을까.

수요일...  
24일...  
24일...?  
24일!

그래, 외대학보가 수습기자 모집마감하는 날이지. 빨리 달려가서 색다른 대학생활을 제공하는 그곳에 도전해 봐야지. 도전이야말로 바로 젊음의 특권이겠어?

외 대 학 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그 39년의 역사를 조명한다

한국을 개척한

외대인의 도전과 갈채의 세월 39년



영동빌딩에서 이문준으로 이전한 57년, 인문과학관 건물의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영환

<본보 전 편집장>

개교 40주년 내내 이름 본교가 정년내에 내뿜은 디가...

많은 합판으로 벽을 이룬 강의 실이있기에 한쪽 귀로는 무료...

이러한 성과들은 바로 본교의 특수성을 내민 것이었다. 63년 4월에 발행한 노...

여주고 있다. 이때를 본교의 학원지주의 태동 시기라고 봐도 무...

모의유엔총회, 외국어 응변대회, 원어연극과 세계민속예술제를 개최하여 한국최고의 자부심을 만끽하기도

학생회를 두어 학내단체를 통합토록 한다. 군사문화의 대학원부는 이후로도 계속되어 61년 6월20일부...

발표를 하게 된다. 본교의 행장은 계속됐다. 79학년도부터 야간대학 8개학과가...

70년대 말부터 문교부의 분교정책의 일환으로 대학대학이 수도권 혹은 서울 근교에 설립...

이영환 <본보 전 편집장>

개교 40주년 내내 이름 본교가 정년내에 내뿜은 디가...

외대진출·독재정권에 항거 주도 청년기 외대의 푸른 이미지 계승해야

남녀공학이던 또 외국어와 영어를 중시하는 본교는 다른 대학과는 다른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이러한 성과들은 바로 본교의 특수성을 내민 것이었다. 63년 4월에 발행한 노...

여주고 있다. 이때를 본교의 학원지주의 태동 시기라고 봐도 무...

발표를 하게 된다. 본교의 행장은 계속됐다. 79학년도부터 야간대학 8개학과가...

70년대 말부터 문교부의 분교정책의 일환으로 대학대학이 수도권 혹은 서울 근교에 설립...

이러한 성과들은 바로 본교의 특수성을 내민 것이었다. 63년 4월에 발행한 노...

6번째 별박질

○ 6·25전쟁의 격전이 끝난 뒤 남한은 유엔군에 의해 자유로워졌지만 이의 경사사이어야 한...

외대 개혁을 위한 63년 10월

외대 개혁을 위한 63년 10월 10일, 본교는 63년 10월 10일, 본교는 63년 10월 10일...

외대 개혁을 위한 63년 10월

외대 개혁을 위한 63년 10월 10일, 본교는 63년 10월 10일, 본교는 63년 10월 10일...

외대 개혁을 위한 63년 10월

외대 개혁을 위한 63년 10월 10일, 본교는 63년 10월 10일, 본교는 63년 10월 10일...

외대 개혁을 위한 63년 10월

외대 개혁을 위한 63년 10월 10일, 본교는 63년 10월 10일, 본교는 63년 10월 10일...

외대 개혁을 위한 63년 10월

외대 개혁을 위한 63년 10월 10일, 본교는 63년 10월 10일, 본교는 63년 10월 10일...

외대 개혁을 위한 63년 10월

외대 개혁을 위한 63년 10월 10일, 본교는 63년 10월 10일, 본교는 63년 10월 10일...

외대 개혁을 위한 63년 10월

외대 개혁을 위한 63년 10월 10일, 본교는 63년 10월 10일, 본교는 63년 10월 10일...

###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보며

# 미국에 의해 과대포장된 '북한핵' 공포

지난 3월 12일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의 제9기 7차회의에서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한반도의 긴장구조와 전쟁위협에 대응한다는 이름하에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이하 NPT, 북한명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라는 중대 결정을 발표했다. 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의 대북한특별사찰결정안은 결국 사찰기부리는 마찰이 이어 NPT 탈퇴라는 북한의 마지막 선택으로 현실화될 것이다.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은 발표초기의 '핵무장 선언 가능성', '한국전쟁재발' 등의 근거없는 불안전이 벗어나 점차 미국의 대북한 압력과 전쟁연습에 대한 '국가 의 최고이익'을 지키기 위한 북한의 대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면서 핵전쟁준비인 틱스퍼리트훈련을 강행하고 있다.

미국은 남북회담 가능성이 높아져야 남북분리분위에 찬물을 끼얹고 남북관계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특히 IAEA를 통한 대북 특별사찰결의와 이어져야 한다는 선례에 따라 이 후 남북교섭심원, 틱스퍼리트훈련, 합동조사단(이하 TS)훈련, 전쟁동원훈련에 대한 내정간섭과 강경조치를 노리고 있다. 북한이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는 TS훈련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족 전쟁의 운명을 가늠할 중대한 군사훈련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동태한 지형과 풍상한 영인민 상륙작전은 미해방상륙군(M.R.B)이 직접 참가하며, 전체 훈련은 직접적 교전이 아닌 상태에서 원거리군부

과 더불어 TS훈련으로 맞이한 한반도 긴장구조조치책으로 인해 국가의 자존권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탈퇴를 일사해 왔다. 북한이 탈퇴한 NPT는 1970년에 발효되어 95년에 그 시효연장을 논의하게 될 현재 154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핵무기 불확산 조약이다. 전례와 본문을 11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NPT의 주요내용은 강제국의 핵확산을 인정하고 기회의 비핵보유국에 대해 핵개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불확산 조약이다. 기존의 핵무기보유국인 미, 영, 소가 주도하는 NPT에 가입하지 않은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의 핵무기실험과 개발에 대한

포이우 미국과 일본의 주요인원은 핵무기 선언내지 전쟁포만 가능성은 모도했지만 2주일이 지난 지금은 핵무기의 훈련보다는 핵무기 등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IAEA 사무총장 한스블릭스씨는 "북한이 발표한 수지와 사실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북한당국은 사찰에 협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방사화 실험실은 옛날식이다. 제련설비는 미비되어 있다"고 6차례에 걸친 IAEA 대북한 핵사찰 이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영연방이 핵무기 실험장 관련시설이 있는 등 북의 군사기지에 대한 특별사찰이

수용을 제정했었지만 미국과 한국이 주장한 UN안보리에 대한 북한의 NPT 탈퇴반대 보다는 중국 등의 격렬한 반대로 결의되지 못했다. 한편 미국과 UN주재 북한대사의 발언은 미국과 대북정책위원회가 사라지고 IAEA의 사찰 결의가 재검토되고 중립적 입장에서 제정된다면 NPT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북한의 입장을 계속 알리고 있다. 또한 김일성 주석이 신년사에서 주장한 "한반도의 비핵지대는 물론 핵무기 개발의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공식발표는 북한사회의 특성상 매우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국가수반인 김주석이 공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부인해 놓고 뒤에서 몰래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문제 연구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NPT 탈퇴의 반박 가능성 역시 김일성주석이 발표한 것이 아니라 중앙인민위원회의 입장이라는 것 역시 주목할만하다.

### 남북핵공동위의 자주적 결정으로 핵문제 해결해야 미국에 종속된 IAEA 대북특별사찰결의로 NPT탈퇴

의 자체적 판단에 의하여 전쟁발발 상황을 판단. 사전에 공격 부력과 전략적 전략에 입각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군 2만과 한국군 12만 전제 14만명이 참가하는 TS훈련은 전체 해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며, 결표전에서 맹위를 떨친 F-117 스텔스폭격기, 페트리엇트미사일 등 신무기가 대거 투입되었다. 게다가 핵전쟁 환경정보무드와 전례해폭격기 B1B가 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F-16, F-4G, F-111 전투기는 모두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전투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엄청난 물리력을 동원한 군사훈련이 만약 중국과 북한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단단한 전쟁연습이라 단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연습을 필요로 하는 것은 남한에서 미국이 주도하여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IAEA의 특별사찰결정이 후 '미국의 일방적 추종정보에 의한 IAEA의 핵확산 판단'이라는 주장

이유에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결국 IAEA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특별사찰을 결의했다. 북한의 원자력에 대한 의문점은 영연방이 설치된 원자보가 프랑스의 핵무기 개발 시 사용된 중수로형발전 시설이므로 군사용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언론에서 과대포장한 한 사례에 불과하다. 중수로형 원자로의 비용이 많이 드는 농축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아 원자력개발 자립에 효과적 원자력이다. 남한 역시 70년대 초 캐나다로부터 도입을 시도했었으며, 경북 함성의 2호원전은 중수로형 원자로로 건설되었다. 중정시설과 관련한 부분은 핵전쟁경쟁 당시 대규모 발전·공인시설의 공급으로 인한 과잉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 땅에 묻어둔 사실로 마무리되어 무리한 추측 보도임이 분명하다. 지난 19일 IAEA 특별사찰이후는 북한의 NPT탈퇴선언전북과 특별사찰

### ◇3월 6일 출소한 문익환 목사를 만나



## 신앙과 운동이 하나되는 기독교운동 전개

민간인으로서 평양평을 밟음으로써 민간주도 통일논의에 물꼬를 트게한 89년 초 박봉사신, 그이런데 구속·수감되었다가 지난 6일 사면조치로 가석방된 문익환 목사(75)를 만나보았다.

### ▲출소교회와 사면편지를 간담히 해주십시오.

이런데는 옷은 일복도 사친 썩히지 않아서 하는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 대사면은 역사적 호르몬인데

있다고 생각해. 수구세력들의 엄청난 저항과 우리의 도덕적 압력에서 김형상정권은 흔들리고 있어. 유원길정권 정권이 수구세력을 제압하도록 믿어야 해.

물론 김일성 정권이 민중의 편에 선 정치를 하기에는 커다란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지금은 민(民)의 힘이 커졌기 때문에 누가 정치를 하더라도 합류할 수 없다고 봐. 또 문민정부가 이전의 군부정권과는 달리 여론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고 봐. 이게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이거든. 유원 길에 우리 주장을 내세워 정부에 요구하지 말고 여론조사를 해서 민(民)의 뜻으로 정부를

(民)과 관(官)이 함께 통일운동을 해야해.

통일 후 정서의 통일과 직업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점이 잘대 못해. 이걸 알러 나가야 되지. 통일문제는 문화, 예술 등 정서적으로 접근하는게 얼마나 중요하진지를 말아.



### "일제치하에서 민족해방을 위해 노력한 기독교인이 많았지... 사회주의와 기독교신앙은 아무런 모순이 없어"

민은 반동세력의 저항 때문에 영거 주중해져 버렸어.  
그런데 동국대에서 석방조치된 집회를 가지면서 이것도 기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런 사면은 기쁨의 전야제. 전민사면의 진주 곡같은거지.

▲미국의 특별해사할 압력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등으로 긴장되어 있는 현 상황에 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목사의 신분으로 통일운동에 뛰어들면 계기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 나가실 겁니까.

▲죽음에 계실 때 대신이 치루어졌는데 지난 대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선에 실패했다고 딱딱한 사람들도 많은데 젊은 세대가 더 많은 것은 이렇기 때문이라고 하면 되나. 딱딱해 있지 말고 다시 뛰어와서. 정권교체만 목적으로 봤다면 실패했지만 우리의 목표는 자주, 민주, 통일이었잖아.

어렸을 때부터 난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어. 일제치하에서 민족주의와 기독교 신앙은 곧 하나였지.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민족해방을 위한 것을 할만큼 해방운동 하는 이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 김구, 김구사, 여운경, 이회영, 유동주 모두가 기독교인이었잖아. 사실 사회주의와 기독교 신앙은 아무런 모순이 없어. 우리가 그런 시대의 첫 세대였는데 전에 북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보니까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이더라구.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조화를 이루는 첫째와 마지막 세대가 만나게되지. 그러니까 사람과 난 건 말이 필요없어. 금방 말 통하니까.

▲앞으로의 통일운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영삼 정권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청년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신앙을 허무맹랑하게만 생각하면 북의 민중도 민족은 민족의 부활이요.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다라고 하니까 아. 북한신앙이 의미가 있는거구나 하더라고. 나에게 신앙과 운동이 곧 하나야.

현 정권은 큰 도덕적 위협을 받고

▲정치에 기자>

##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면 성공한다

성공기 위해서는 크게 생각하는 버릇을 키워야 한다.  
항상 크게 생각하라.  
크게 살 것이다.  
보다 큰 행복  
보다 큰 성공  
보다 큰 인간관계  
보다 큰 믿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다.  
지금 출발하라  
인생은 움직이고 있기에는 너무 짧다.  
I CAN DO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을 읽어보자./세출발이다.  
PAGODA에서.

**교과외국어학원**

ENGLISH  
FRENCH  
GERMAN  
JAPANESE  
CHINESE  
RUSSIAN  
SPANISH

274-4000  
중로 파고다중앙빌딩 4층  
515-4020  
강남 영구역 역동로대교

죽 외대학보 지령 600호를 축하드립니다.

PAGODA FOREIGN LANGUAGE SCHOOL  
I CAN DO  
ORGANIZED 1969





◇복적 투쟁을 하고 있는 백경선(상경·경제88) 학우를 만나



이문준으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백경선군(사진에서 왼쪽)

보정을 제주는 학우들의 분주한 발걸음 속에서 새내기들의 밝은 웃음속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와 함께 누구보다도 주운 거울을 보낸 백경선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3·6 특별사면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6·3투쟁 관련 7명의 학우와 집시범의 반 1명이 그들이다.

이름을 알려달라. 반갑다. 많은 플래카드도 그려주었는데, 많은 문제를 세로로 인식시켜주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외대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6·3 투쟁 중으로 제1회 학생총회입니다. 얼마나 보고싶었던 학우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보고싶었던 교직원들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제1회 학생총회와 학우 여러분과 이 교우에서 함께 공부하고 싶단 마음으로 사명을 받고있습니다.”

제작: 양승우중 사면을 받은 27% 안에 들었는데도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몇 안되는 석방자에게 하나였던 그들앞에는 재적이라는 거대한 장성이 또 하나 놓여 있었다.

6·3투쟁 등의 사건체적, 미

과와되지 않은데다 함께 활동을 할 동지가 한명도 없는 상황 이 때부터이다. 그러던 중 12월 6일 전복주의가 결정되었지만 그는 거의 손을 놓게 되었다. “전복주의 활동하지는 분에게 무척 미안해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17일 민기협 어머니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다시 시작해야 하겠다고요.”

그때 이전 나만의 문제도 아니고 힘한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문제가 아닌가. 복적이 된다는 건 나와 6·3투쟁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고, 아직 감옥에 있는 동지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의의의 힘이 없겠는가. 그리고 우리보다 더 힘쓰신 어머니들...

그때부터는 학생회 명단 조사작업을 하고 한명 한명 사명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몇몇 모였지만 제대로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3월 6일 8명의 외대학우들이 사면됨으로써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3월 10일, 6·3의 아픔을 안고 교정을 떠났던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낭랑하게 외대도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즈음이 이 문중에 ‘6·3투쟁회’의 이름으

내 삶에 있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3월 13일부터 6·3 동지들을 중심으로 봉착한 외대적성복 주주진위위원회에서는 대외대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처음 학교에 들어왔을때 느꼈던 소외감, 외대의 주인이 아닌것 같았던 감정을 되찾고 싶었다. 이 일을 나누고 지지를 부탁하러면서 팔관이 썼기나감을 느꼈다.

16일까지 이어진 서명운동, 17일 일일캠프, 그의 생활은 정신없이 바빠졌다. 아침에 일어나 새벽까지 자면서 하루에 한 개 배포도 못했는지 못했다. 2월 2일 아침의 외대인이 서명을 했고 일일캠프에서는 손이언급이 36만 원이나 되었다. “신사초이. 이제 무슨 일을 할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솟았어요.”

그 다음날인 3월 18일, 명동성당에서 전복주의 각 학교대표들이 단식투쟁을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제작생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동쪽 마길일인 3월 27일 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대동행 특례를 내리도록 하기로 하였다. 교육부에 서는 학교소관이라는 중 평계를 대며 제작생 문제를 해결할 의

향을 보이고 있지 않던 이이 학교교정의 권한을 떠난 일이고 정부 선지가 있어 가능한 제작생의 복직문제는 언론매체를 타고 여론화가 되었는데는 기대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그의 건강상태가 이전부터 좋지 않았음을 걱정하던 친구들이 단식을 극구 말했지만 백경선은 굳은 단식에 돌입했다. 가만히 앉고 보았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외대, 동의를 비롯한 서울교대, 성균관대, 단국대 등에서 온 14명의 대표들이 단식에 들어가는데 그는 명동성당에서 길거리로 옮겨야 했다. 명동성당 주위신부가 민주화운동 기념장 수여식에 대외대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끄는 일을 맡아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서운함을 느껴지고 건강상 문제가 피드백 현상이 이렇듯 사람들의 현혹시키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꽃병바람이 부는지 18일은 유달리 추웠다.

낮에는 선전포도 하고 밤 9시 정도까지 명동성당 앞 길에서 단식을 하다 신명어 전교조 사무실에서 선잠을 잤다. 그는

“힘들지만 신바람으로 투쟁 하겠습니다”

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짐을 느꼈다. 한편 도지번 걸음을 수 없는 발인 ‘요로결석’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이 벌써 2개월이 지난 상태. 그동안 건강관리로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19일 오후 12시경 창지가 꼬여들었다. 큰일이다. 아픈 표시를 내던 다른 동지들도 흔들릴 뻔했다. 배를 움켜쥐고 참았지만 선전진 마치고 와서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곧 병원에 실려 갔다. “우리에게 돈이 있었어, 광고도 모조리 다 냈어, 내 몸 내가 알아. 단식에 계속할 수 있어.”

병원 복도바다에 주지않아 이 할때는 그들 보며 그의 친구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요로결석이라는 말만 듣고도 의사는 단식을 중지하라고 하였다. 그는 동료들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가백연급 못했다.

“집에서 활동 못하고 앉아 있던 복적이 나의 지주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너무 단식일에 해결할려고만 했던 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일 또 쉬면 된다던 시 21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전국제작생 복고 추경준대의대회가 이어진 참가한 그는 무척이나 행복하게 뛰어다녔다. 명동 평화의 거리에서 팔공공원까지 평화행진을 하고 팔공공원안에서 외대 민주화기념비와 풍경을 지면에서 그는 공원에 모인 시 민들에게 6공공의 22인사들의 제작생들의 복직을 부탁했다. “4백77까지 모인 이날 집회에서는 전복주의는 단식농성을 정지하고 22일 부터 민중투쟁을 단식 농성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 단식농성이 비록 여론화에서 실패했지만 이날 집회에서 보여준 한국총학생회연합(전총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교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모습과 3백명이 들인 노력의 모습과 3백명이 들인 노력의 모습이 새롭고 기쁨을 부여해주는 화를 마치며 돌아오며 그는 22일 민주화기념비 농성을 정지한다. 27일이 열마나지 않았는데 초조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크게 웃으며 대답한다. “단순히 복직의 문제가 아니라 대우를 받고 복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못했거나 졸업을 앞둔 사람 등 경제적적으로 어렵기 때문이

계속되는 서명작업, 거리행진, 단식투쟁, 그러나 투쟁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몸짓이므로 그는 기쁘다

동족제적 학우들의 또 하나의 생산 동기 부름은 ‘전국제작생 복고추진위원회(전복추진위)’를 결성하면서 체제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외대의 복직투쟁은 6·3투쟁으로 전개되었다가 92년 5월 집행부에 풀려난 백경선(상경·경제88)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제작생들의 복직투쟁은 단순히 대학졸업권 제도도 모르는 학생이 아니다.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나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싸움입니다.” 이러한 복직투쟁의 의미를 찾기까지 그의 나날이 복직투쟁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으로 일관된 것은 결코 아니

로 플래카드가 울려졌다. “우리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 다. 수백명대, 복직행진, 강 제정지침해!”

“6·3 동지들을 규탄해 복직 투쟁을 준비하느라 힘이 솟더군요. 그리고 복직투쟁에 대해 다시 골짜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 다. 이 투쟁이 나의 삶과 어 떷 관계가 있는건지...” 이 복 직 투쟁이 나의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5공에 처할 기쁨 내리지는 대동행 특례도 그냥 복적이 될 수도 있는게 아닌가... 복직투쟁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소극적이던 이들이 가졌던 회의적인 생각이 머 리를 스쳤다. 그러나 그는 크게 웃었다. 왜 부랴부랴 앞에서 내가 침묵해야 하던 말인가.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가 대동 행이 배양해주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아니다. 복직투쟁은



최근 11월 전복주의 결성을 위한준이 보았던 친구들 활동을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수 없었다. 제작생단식투

**자기 성장과 잠재력 개발을 위한 집단 상담**

자신의 긍정적인 잠재능력과 가치관을 새롭게 발견하고 타인과의 상호 이해 경험과 더불어 인간관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실천적인 자아실현 경험의 장을 마련합니다. 외대인이며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실시기간
  - 이문캠코스 : 1993년 4월 2일(금)부터 매주 금요일 15:00~17:00
  - 용인캠코스 : 1993년 4월 6일(화)부터 매주 화요일 13:30~15:30
  - ※지원자의 사정에 따라 시간 변경 가능
2. 신청기간
  - 1993년 3월 22일(월) ~ 3월 29일(월), (이문, 왕산 동일)
3. 신청장소
  - 이문캠코스 : 학생생활연구소(학생회관 2층)
  - 용인캠코스 : 학생생활연구소(학생회관 2층)
  - ※자신감이 없으신 분이 자기표현,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계시는 분에게 더욱 도움이 됩니다.

1993. 3.

**학생 생활 연구소**

**알 림**

'92학년도에 이어 '93학년도에도 교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문캠코스에 학생순찰대인 '외대사랑순찰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캠퍼스내의 무질서와 외부인에 의한 폭력, 파괴 행위를 예방하고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운영되는 '외대사랑순찰대'에 대하여 재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아울러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교내에서의 음주, 고성방가하는 행위 금지
- 각종 폭력, 파괴행위 금지
- 나뭇가지등으로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
- 교정에서의 운전연습 및 불법주차 행위 금지
- 외부인의 야간 출입통제를 위한 학생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협조

1993. 3.

**외대 사랑 순찰대**

◇대학가를 침투한 다단계 판매방식 (Multi Level Marketing)을 해부한다

“친화”가 걸려왔다. 예전부터 있어왔던 선배의 복소되었다. 그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도 한달에 60만원이상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3일동안 시간을 내 주기를 권했다. 91년 제대하고 복학한 이후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던 터라 쾌히 승낙했다. 약육강소에서 만난 우리는 어느 건물안으로 들어갔다. 700명이 모여있는 방안에는 푸른 푸른 선명화라는 플래카드가 붙어있었다. 3일동안 12명의 특같은 강의를 들었다. 첫날 강의 후 속았다는 생각이 나지 않고 하자 그 선배가 극구 말하며 3년간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3년간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3년간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3년간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스스로를 ‘헬프맨’이라고 부르는 무장된 강사들에 의해 진행됐다. 내용은 제품 효능에 대한 소개. 다단계 판매의 장점 등으로 주로 구성되고 있고 복이 내용이 3일동안 반복주요사항으로 철저한 논리와 확신속에 교육되고 경청하게 말하게 지켰다 그 내용이 친구들 중장 사적이 하다는 사정권에 몰타게 된다 한다.

(한계 유망)다단계는 50여 개의 다단계 판매방식이 회사중 가장 규모가 큰 ‘삼승산업’의 판매방식을 살피고있다.

교육이 끝나면 판매원이 될 것이다. 만났던 친구들 10명 10명만 이 되려면 10명 71만 7천 원만 더 지출할 수 있다. 지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다단계 판매방식은 ‘질드레’라는 할 정도의 교육을 하고 3년간의 교육에 참가했다. 3일의 교육은 2백여만원의

법으로 주로 유통되는 제품을 자식친구, 화랑중 등이 원해 40여만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에는 3, 40대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취업난과 황금만능주의에 있어있는 대학생이들 과고 들게 되었다. 특히 인간관계가 폭넓고 조직체계를 잘 아는 학생의 출신들이 많이 가입해 있다고 한다.

이 방법은 그 매력이나나 모호하거나 하다. 지난날에 수십억을 번 회사라도 이만한 데 당 행령의 사정까지도 끌어들이고도 모호한데도 10만 원도 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다단계 판매방식은 ‘질드레’라는 할 정도의 교육을 하고 3년간의 교육에 참가했다. 3일의 교육은 2백여만원의



황금만능주의와 한탕주의가 낳은 합작품

전기요를 살 수밖에 없도록 만 들었고 3명만 테러오면 돈을 벌 수 있고 승진도 된다는 말에 중독으로 전기를 샀다.

그러나 3명을 잡아들이지 못했고 기록에게 말할 수도 없 이 후회를 해야 했다. 1년간 돈을 벌기 위해 복학했던 사람 들에 대한 중요와 불신을 씻을 수가 없다.

신분을 밝히기 거부한 뒤이 라는 복학생의 피해사이다. 그러나 이 방식의 피해를 입었던 학생들이 경험했던 과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친한 친구나 선배로부터 걸 리오는 전화로 대부분의 사 건은 시작된다. “근사한 아르바 이트가 있다” “3일동안 나를 믿고 시간을 내라” 등의 이야기 하고 제의하는 사람이 아르 바이트만 맡아 선동 승낙한다. 다단계 판매원들의 선동의 거 짓말에 쉽게 넘어가는 것은 그 들 대부분이 졸업했던 취직 을 못했거나 졸업을 앞둔 사람 등 경제적적으로 어렵기 때문이

라고 한다. 판매수입 중 49%는 일반인 지식 계층으로부터의 후원으로 모조리 나뉘고 나머지 51%는 다 단계 판매자들에게 경매된 비율로 분배된다. 즉 판매원 이 된 사람(A)이 또 다른 3명을 끌어들이면 그는 한단계 높은 판매수입으로 최대 3명만 내 자 승진급급의 10%를 갖게된다. 이 3명이 각각 3명을 끌어들 이면 A는 판매수입의 15%를 얻게된다. 또 한 판매수입의 자격으로 1억원의 실적을 올린 대리점 사장 으로 승진하여 27%의 돈도 20%를 받게되고 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면 총합화장은 된다. 또 한 판매수입이 이문 캠퍼스 를 독차지 하는 이른바 ‘황금단 계’라는 것이나 실재는 다만 계 계를 띄우기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월은라등을 만들 어 판매원들이 경쟁적으로 사 람을 끌어들이는 데에 열인이 되 게 한다.

그러나 이 승진과정은 이른 상임원 원상성이 없다. 대부분은 판매원 3명의 하부판매원 을 확보하지 못해 3명만 얻으면 환아로 보게되고 하나만을 취 게 되는 것이다. 단단계 판매방

바뀌기도 한다. 심지어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고 그만둔 시 람도 ‘실재’ 내 능력이 부족해 서 그만두었다는 부장자에게 잘 못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 장이다.’

선생님은 상관없이 유통과정 에서의 대표로 자신의 배를 채우기 때문이 많은 돈이 아 주 쉽게 외국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건 인간관계의 상실이다. 친한친 인간관계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보면 시 피라미드의 그들 재워놓어 야만 내의 이윤이 분할된다는 생각이 팽배하는 사회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피해들은 불구하고 이들이 교 회활동에 참가하는데 이를 격 려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인간관계를 제대로 서로를 피라미드의 한 부분으로 끌어 들이려는 이 단단계 판매방식 이 상공과 돈을 최상으로 여기 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라지 는 것은 요원한 것일까.

<이문준 기자>

**공 고**

제목: '93년도 대학 직장에비군 소집점검 교육

본 대학교 예비군 대원중 86년 이전 전역한병(7년차 이상)에 대한 소집 점검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대상자는 전원 교육에 참석할 것.

**“아 래”**

1. 일 시: 93년 4월 2일(금) 09:00~13:00
2. 장 소: 학교(미네라 동산)
3. 대 상: 86년 이전 전역한 병(7년차 이상)
4. 기 타: 1) 예비군복 착용 2) 지연 도착은 불참처리 됨

\*7년차이상 병은 4시간 소집교육으로 금년 교육 종결됨

5. 소집통지서를 필히 대학직장 예비군 본부에서 수령하고 교육에 임할 것.

1993. 3.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장에비군 연 대 장



□풍트-군대에서 생긴일

# 김상사와 외대학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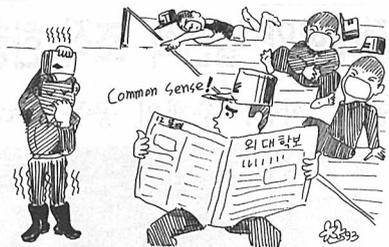
늘상 그는 국민성과 민족성을 외치며

다. "조선놈은 꼴리야" 또는 "발로 안되는 놈은 몽둥이가 아이다"라는 말도 군대속에서의 '군인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삼십대 초반의 나이에 상사라는, 그리고 인신계, 사병의 휴가와 보급품 담당의 제법 활발한 보좌(보)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와 업무에 대한 하는 높음을 모르는 자부심을 과시하기도 했다. "군대는 역시 나같은 사람이 있어야되지 ROTC 개를 열양하는 것은 소대장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정교교육이 있다. "교육은 무슨 교육이냐, 까라면 까고 하라던 하는 군기가

되고야나. 야 김정장 그렇게 않나?" "에, 그렇겠조 뭐" 말만 방방, 신랄할 것 없이 그는 군기와 까라면 까는 군인 정신을 강조하고 실천했다. 그가 강조하고 실천하는 군인정신에 여행하는 사람에게서 구라가 걸리듯이인지 인사제로서 동원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휴가나 외박기간에서의 불이익이 주머니나 연휴기간에서의 제외, 또는 훈련기간에 걸려넣어 벌을 중징치하는 방법 등등-곤이 갈 수 있는 새벽 1시나 2시에서의 불침번이나 보조근무를 걸어 넣어 괴롭히는 등 합법적인 수단으로 괴롭혔다.

이런 그에게 정식으로 대는 사람은 바로 한병정이었다. 발단은 아주 사소한 '상식'에서 시작했다. COMMON SENSE. 정말 '상식'이라는 말이 어느 날인가에 한병정이 매 주 친구에서 받아 보는 외대학보에서 나왔다. 집회가 끝나고 '아들과 딸을 볼때, 한병정이 워고 있는 외대학보를 힐끗 보면 김상사는 '커민 센스' 센스 그가 중요하리. 그가 없으면, 군대생활하기 힘들다. 한병정이야 군대생활 더했으니까 좀 없어도 되지만 나들은 그런것 좀 배려라. 한병정 바라 말인데도 군대생활 잘 할려고 센스 공부하고 있지 않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커리치고 웃자 '이 새끼들이 죽을려고 관정했나. 육군상사 김상사가 아가하데 웃어. 평소 그의 제제수단을 익히 알고있던 사병들은 모두 그냥 조용히 있었다.

이런것은 말년 병장의 '드러운 일주일'을 버티었다. 그러나 어느날부터인가 매 주 오던 외대학보가 오지 않았다. 편지를 통해 알아보니 학보는 계속 보낸다고 하고, 그럴 수도 있었지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그도 어느날 이제 제대를 하게 되었다. 소대원들과 간단하게 작별인사를 할 후 중대장으로 신고, 확인증 복잡한 절차가 그를 거쳐갔다. 어쨌든 제대하면 좋은 인상이나 남기자 생각하며 김상사를 보기 위해 C.P.O.를 들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김상사를 기다리던중



김상사의 책상위에서 그는 스크랩을 보게 되었다. 무심코 그것을 펼쳐자 외대학보의 각면들을 스캔한 조끼가 들어있었고, 한병정은 놀라움과 미안함이라는 두가지 두가지 감정이 마음속에서 생겨났다. 매미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김상사의 얼굴에서도 또한 약간의 미소가 희미하게 보였다.

정 광 철  
(동학 · 이립2)



## 희망의 내일로 비상하라, 외대학보여!

□수필-외대학보 기자들을 위한 외대학보(續)

## “언제나 자랑스럽고 뿌듯한 얼굴빛이 좋다!”

“외대생중에 나만큼 외대에서 잠을 많이 잔 사람은 없을것”  
그는 가끔씩 이런 말을 하곤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그 친구의 표정은 어떤 감동이나 허탈함의 기색이 아닌 언제나 자랑스럽고 뿌듯한 얼굴빛이었다. 그 친구, 자기말대로 외대에서 가장 많은 숙식을 했다는 그 친구의 정색은 다름 아닌 황년의 외대학보편집장까지 지내는 기쁨만을 대신할까 한다.  
나 역시 외대의 모은은사에 몸담았던 관계로 일찍이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 내가 6백호를 갖는 외대학보에 보내는 편지말을 대신할까 한다.  
말이 나왔으니 그 친구를 위시한 외대학보기자들의 속삭임대이기를 좀더 보태보자. 일단 월요일밤새 조반을 끝낸 화요일아침이면 부시시한 머리에 구겨진 바지를 입고 남들은 '신선한'아침의 진입로를 거슬러 내려가는 인물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외대학보의 기자들이다. 그들 스스로 입학때의 '전공과를 버리고' '학보과'라고 말할 정도로 때로 과친구들의 동경도 때론 민족도 사는 이들이 또한 그렇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 그런 부시시한 모습의 그 친구에게서 유난히 빛이 반짝이는 시간을 보직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밤새, 아니 거의 주말부터 화성회관2층을 합숙(?) 하며 만들어낸 신문이 실린

“집회와 원고마감이 겹칠때 펜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짧은이런 이들에게 부끄럽다”라는 중 아려운 고민에서 부터 “우린 원고도 썼는데야에서 화보는 화장실 변기에서 제일먼저 발견되는것까”에 이르기까지... 그 친구는 단지 내가 생각했던 신문만들기에 미친 신문쟁이가 아닌 진정 젊음과, 조국과, 미래와 그리고 외대를 고민하는 주인공이라 느껴졌다. 외대학보기자중에 내가 아는, 아니 그 보다는 가장 많이 술자리를 함께한 친구

화요일 아침이면 부시시한 머리에 구겨진 바지를 입고 남들은 '신선한'아침의 진입로를 거슬러 내려가는 인물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외대학보의 기자들이다.

트럭이 막 교문을 들어설 때의 표정이었다. 아마도 그런 표정은 마음을 사로잡는 오랜 연인이나 친구를 멀지않아서 발견했음이나 가능할 그런 눈빛이었다. 그 친구는 가끔 물어 여가게가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집회장에서, 도서관에서, 거리에서, 외대가 있고 젊음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목격되었다. 바로이 같은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는 생활이 그들의 평소 마주치는 부시시함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때로 나는 그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진정 외대학보인들의 고민을 보곤 했다.

오늘도 밤을 새며 불을 밝혀둔 기자실내 그 친구만큼의,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외대의 젊음들이 곁에 있음 느낀다.  
가 보면이라 이것이 얘기할 수 있는 외대학보의 전체가 아님을 안타깝게 느낀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 친구를 통해 맺게된 외대학보에 대한 신뢰는, 다만 그 뿐이 아닌 39년역사 6백호의 신문을 만들기가 지 무수하게 거쳐왔을 그 신문의 후배들의 고민도 이해할수 있게 만든다.  
이제 그 친구는 6백호 외대학보가 나오는 이 날 어느 연병장에서 맞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친구의 임영전날 “이제는 후배들이 많아 외대학보의 내장지리는 비켜줘야 할 것 같다”던 말을 생각하니, 오늘도 밤을 새며 불을 밝혀둔 기자실내 그 친구만큼의,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외대의 젊음들이 곁에 있음 느낀다.  
누군가 외대학보를 그저 우리 대학에서 나오는 정기적인 신문일뿐이라고 말한다면 난 이렇게 대꾸하겠다. 우리가 외대를 선택한후 늘상 우리 곁에 있어왔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외대학보는 단지 열두장의 종이로써가 아닌 진정 살아있는 외대 젊음들의 미래와, 희망과, 내일을 위한 애정의 실체라고.  
아마도 오는 화요일아침이면 우리는 강의실로 향하는 진입로에 수북이 쌓인 외대학보 문지들을 보게될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의 시선은 어딘가 향하여 미미의 반짝이는 눈을 하고 이 교정을 누비고 있을 그 고민의 주인공들을 먼저 찾아보게 될것 같다.

박 정 호  
(시영 · 노어4)

**외대학보 6백호 발행에 즈음하여**

이번호를 기해, 외대학보가 6백호 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외대인의 관심과 사랑속에 대학신문의 으뜸으로, 전보인론의 모범으로 성장한 외대학보가 이제 외대인 여러분께 지면을 뽐내거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본교의 건학이념인 진리·평화·장조와 학원지주, 사회변동에 기여한다는 사명으로 정분직필의 면대를 문계 위었던 외대학보가 이제는 한발짝 더 외대인 여러분에게 다가 가고자 합니다.

외대인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그려내고 그속에서 외대인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와 모순에 대한 도전과 개혁'이라는 현대의 존을 발원시켜, 미래를 정갈한 전보의 요망으로 지성의 결실으로 기구이거는 것, 이것이 외대학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망입니다.

앞으로도 외대인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글을 마칩니다.